

인문학의 성과 확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은경 (원광대)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 지역과의 연대와 '찾아가는 인문학' |
| 2. 인문학 확산을 위한 전제 |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인문학의 확산 방안의 구체적 사례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문학의 성과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한 전제는 첫째, 순수 인문학 전공영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지지이다. 인문학에 대해 통찰하고 그 성과를 응용하고, 실천하는 주체 혹은 모체가 없이 인문학 확산은 불가능하다. 둘째, 제도교육에 있어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교육을 회복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중고교 교육을 회복하고 대학에서의 인문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의 각 전공교과에 접합한 응용인문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

인문학 대중화 이전에 '인문학의 성과, 혹은 인문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결과하는 '성찰하는 힘'이고 '소통과 공감 능력'이다. 인문학 교육의 목표가 '주체와 시민'으로 요약될 때, 그것은 곧 획일적 인간이 아니라 곧 구체적 현실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존재 세우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문학 성과의 확산과 대중화 실천 방안은 첫째, '지역'에 주목해야 하고 지역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마을인문학과 지역 가꾸기의 지속적인 실천은 각 지역적 특색을 담

은 ‘지역학’과 결합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군산학, 안동학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고, 더 발전된 형태로 일본의 미나마타학, 오키나와학 그리고 지원학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셋째, 인문학 대중교육과 시민 인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호소통’과 ‘주체화’이다. 프로그램과 강좌는 계몽주의적 일방향성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노숙인, 교도소 인문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이주노동자, 방치된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인문학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복지프로그램과 연동해야 한다.

주제어 : 인문학 확산, 인문학 대중화, 인문교육, 실천 인문학, 시민 인문학, 수행인문학, 지역학, 지원학, 성찰, 공적인 삶, 마을 인문학, 시민, 주체, 찾아가는 인문학, 복지프로그램

1. 들어가며

‘인문학의 위기’가 운위되기 시작한 지 십 년이 넘었고 과연 그 세월 동안 인문학은 ‘실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불어닥친 대학교조조정 과정에서 대학교육은 직업교육이 되어가고 있고 인문학은 위기를 넘어 이제 고사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곳곳에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대학 광장과 거리에 나무끼는 각종 홍보와 전단지, 플랜카드 등은 흡사 ‘인문학의 부흥회’라도 하는 듯, 돌연변이적 번성을

뺏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경이 달갑지 않은 것은, 어느새 천덕꾸러기가 된 인문학이 대학은 물론 초중고교에서 추출되어 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증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집을 잃고 거리에서 좌판을 벌이고 있는 가련한 인문학의 신세. 극단적인 비유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러한 생각은, ‘인문학의 성과 확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연코 이렇게 응답하게 만든다.

인문학 확산을 위해서는 순수 인문학 전공 영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문·사·철을 비롯한 인문학 분과가 ‘산업수요 인력 양성’이라는 실용성과 기능성에 맞춰 다양한 융복합, 해체, 폐과 등으로 그 존립 근거를 잃어버린다면, 인문학 육성 및 확산의 원천이 사라지는 것이다. 인문학에 대해 통찰하고, 그 성과를 응용하고, 실천하는 주체 혹은 모체가 없이 인문학 확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중 인문학이든, 실천 인문학이든 인문학 확산의 우선 과제는 대학의 ‘인문학 연구’ 및 분과 학문을 진작하고 보호, 육성하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천편일률적 ‘인문학’ 소거는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초중고교의 교육에서부터 인문학과 관련된 교과과정이 제대로 개설되어 ‘삶과 인간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익히 알다시피, 인문교육이 입시위주의 보편교육에서 그 본래의 취지(‘사람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성향과 능력 함양¹⁾)를 잃고, 암기과목으로 전략,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습 욕구가 고갈되었음은 여러 통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

중고교에서의 이러한 인문교육의 파행은 곧 대학으로 이어진다. 대학에서 인문교양교육은 전공학습을 위한 도구과목이나 기초과목이 아니라, 전인적이

1) 박정하·김동환·오종록·허병두, 『중·고등학교에서의 인문교육 현황진단 및 정책대안』, 인문사회연구회, 2003.

2) 앞의 책.

고 창조적인 인간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중핵필수교육이다. 그러나 전문지식 습득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글쓰기’ ‘문·사·철’의 핵심영역의 1~2개의 필수과목 등으로 이루어지는 인문교양교육으로는 인문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인문학의 순수전공성과를 교양교육수준의 내용과 교수법으로 바꾸는 작업 또한 필수적이지만, 이를 응용연구활동으로 전공교과에 접합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가령, 의과대학의 경우 의료윤리, 의료법, 한의학, 의학입문, 의학사, 예방의학 등등 인문교육과 관련된 교과목 등을 개설³⁾하여 ‘전문의’라는 기능인을 넘어 환자 및 사회와 소통하는 인격체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대, 법대, 경영대 등의 교수진들이 학과 교과목 체계구성에 보다 전인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정상화된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정책에 대한 각성과 성찰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나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니만큼, 현실가능한 대중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문학의 위기’와 더불어 대두되기 시작한 인문학 대중화와 실천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5년 성프란시스 대학의 ‘노숙인 인문학’의 시작과 함께 본격화되었고, 지난 10년 간 ‘대중 지성, 실천인문학, 시민인문학, 거리 인문학, 평화 인문학, 희망 인문학’ 등 지역운동, 학문적 패러다임의 전환, 제도화 등 다각적 차원에서 활기와 성과를 보여 왔다. 최근 제도적 차원의 ‘시민인문학’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성찰⁴⁾은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모색으로 이러한 과

3) 전우택 외, 『의과대학에서의 인문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2002.

4) 실천인문학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고영직은 제도화된 시민인문학이 그 주체인 국가 지자체와 대학 등 ‘공급자 위주’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실천인문학의 본래 취지인 “성찰적 사고의 힘을 통해 자신의 해방적 힘을 분출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을 갖춘 위험한 사람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영직, 「운동으로서의 실천인문학을 위하여」, 『문화과학』, 2010. 가을, 167-170면.

정을 거쳐 인문학이 새로운 차원의 전기를 맞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실천하고 수행하는 인문학’의 일환으로서 ‘인문학 성과의 확산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의미있는 성과와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더욱 확대,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인문학 확산을 위한 전제

우선, ‘인문학의 성과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듯싶다. ‘인문학의 성과’가 곧 전공영역에서 축적된 전문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는 곧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상통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인문학 관련 저서들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굳이,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인문학자들이 ‘인문학 확산’ 혹은 ‘인문학 대중화’ ‘시민인문학’에 직면했을 때, 자칫 보편적인 인문정신을 잊고 전문연구성과와 대중과의 격차에 당혹하기 쉽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인문학’은 인문지식의 성과라기보다는 ‘태도’이고 ‘방식’이다. 인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본에는 인문학이 궁극적으로는 ‘생각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천인문학’ 현장 경험이 많은 강사들도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가령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존감을 확보’(임철우), “공감능력의 복원이야말로 인문학의 존재 근거”(이명원), “수잔 손택이 역설하듯이,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치란 환영적 실감이 현실의 리얼을 압도하는 스펙터클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를 지키려는 것”(고영직) “인문학 교육의 목표는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사유하는 주체적 존재가 되어 자신의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성찰적 힘과 자존감을 갖게 하는 데 있다”(이병수)⁵⁾ 등의 언급은 거듭 인문학 교육이 상호소통이자 이를 통한 주체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어떠한 책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은 아니다. 이 세상에 노아의 방주에 넣어야 할 ‘단 한권의 책’ 같은 것은 없다. 그렇다는 것은, 곧 세상의 어떤 책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냉장고만도 못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장고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한다. 책은, 고전이 아니더라도 어떤 책은 어떤 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

책 한 권에 대한 경험은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 나아가 더 넓은 세상의 열개를 성찰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자들이 지적했듯 인문학은 ‘좋은 삶’을 지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성찰적 사유 능력은 곧 독자를 ‘시민’과 ‘주체’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의 인문학’인 클레멘트 강좌를 개설한 얼 쇼리스는 인문학 강좌가 빈민이나 노숙인, 약물 중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공적인 세계’ 혹은 ‘정치적인 삶’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인문학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족에서 이웃과 지역사회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로 이어지는 공적 세계(페리클레스의 용어로는 정치적 삶)로 이끌어내는 것이 이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 ‘정치적 주체로 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뜻이다.

정치적 삶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길이라면, 인문학은 성찰적 사고와 정치적 삶에 입문하는 입구였다. …… 가난의 이유에 대한 비니스의 대답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현실 진단이 도사리고 있었다. …… 가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암시. 즉,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비니스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인문학과 성찰적 사고, 그리고 정치라는 세 가지 개념을 하나로 통합한 말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한 공적인 인간 세계의 기질이나 경향을 잘 나타낸 ‘자기통제’만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인류가 주어진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던 상태에서 벗어나 ‘자치’를 실행

5) 임철우·우기동·최준영 외, 『행복한 인문학』, 이매진, 2009.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치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자기통제’의 개념에서 추적해 낼 수 있다. ‘자기 통제’라는 개념 속에는 인문학, 평온함,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지워낼 수 없는 어려움들을 성찰을 통해 극복해 가는 것 등과 같은 뜻들이 담겨 있다. ‘자기 통제’는 무력에 맞설 수 있는 방어 수단이며, 진정한 ‘힘’에 대한 정의이고, 인간다움 그 자체이다.⁶⁾

위 인용문에서 가난의 이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수동적 존재를 ‘주체화’한다는 것은 곧 능동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며, ‘성찰’을 통해 자신이 서 있는 지점과 타자와 주변 세계, 그리고 그 관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문학’은 흔히 생각하듯 고리타분한 도덕, 윤리, 책임 같은 당위적 가치들을 일방향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학과 예술을 통해 ‘참여자’의 감성과 이성, 존재와 경험의 ‘유일무이함’, 삶의 의미와 경이를 일깨우고,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공적 세계’ 속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인문학은 과거 유산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세계, 급변하고 있는 사적·공적 세계의 지형에 대한 이해 속에서 달라진 현대인의 태도와 가치관의 문제를 사유하고 공유해야 한다.

요컨대 첨단과학기술과 물질만능시대에 인문학이 대중뿐 아니라 모든 존재에 절실한 이유는, 숫자로 추상화되고 수치화되는 우리들의 나날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추상적 기술의 세계는 우리의 일상을 장악해 가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은 인간의 노동을 축소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SNS, 자동기술은 인간의 능력과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한편, 단절과 고립을 가져오기도 한다. 노동과 일상, 소통과 관계 양식의 변화, 가상의 일상 침투 등의 현재 급변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인간’을 여전히 주체로 있게 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설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인문학’의 힘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의사소통, 교육, 이동, 산업, 근무환경, 여가생

6) 얼 쇼리스, 『희망의 인문학』, 고병현·이병곤·임정아 옮김, 이매진, 2006, 24-197면.

활, 건강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이때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⁷⁾ 날마다 일어나는 술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의 오늘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나의 움직임이 곧 시민이자 공적인 주체를 의미할 수 있다. ‘성찰’, ‘시민’, ‘공적인 삶’, ‘자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인문학의 본령을 인지했을 때, 다양한 분과의 인문학 성과는 수요자에 맞춰 새롭게 변주되고 디자인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과의 연대와 ‘찾아가는 인문학’

인문학 성과의 확산을 위한 실천은 첫째, 우선적으로 ‘지역’에 주목해야 하고 지역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지역은 ‘인문학’의 실제적 수요자가 거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인문학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시민’을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적인 세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들이 삶의 바탕임을 자각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구한다고 했을 때, 출발점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근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현대인의 ‘소외’는 관계단절과 자아과잉, 적대와 타자 혐오 등 다양한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파편화되어 부유하는 ‘존재’들에게 ‘존재’의 근거와 맥락을 일깨워 주고 형성해 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담론과 함께 ‘로컬리티’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추상적인 관념으로서 ‘세계’와 ‘숫자’, 익명의 타자들과의 불안한 관계는 진정한 삶의 형식이 될 수 없다. 하여 인문학은 ‘로컬리티’라는 구체적인 리얼리티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마을 만들기’

7) 김인숙·남유선,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호이테북스, 2016, 24-25면.

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이미 여러 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천운동이다. 성찰, 주체, 자치를 지향하는 인문학 교육은 ‘자율적인 삶’이 가능한 단위인 지역, 즉 ‘삶터가 되는 지역’⁸⁾을 만드는 일과 더욱 밀착해야 한다. 이웃, 삶의 방식, 역사와 환경, 문화는 물론이고 인권과 생태 등 구체적 현실 파악하고 시민주체로서 더 나은 삶터로 재구성하려는 실천의지를 가꾸는 것이야말로 인문학 교육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시민인문학, 실천인문학, 희망인문학, 평화인문학 등으로 불리는 학교 밖 프로그램들은 모두 이러한 지역성에 기반하고 있는 인문학 대안교육이다. 노숙인을 위한 ‘성프란시스 대학 인문학 과정’, 자활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광명시민대학’,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의 ‘자활 인문학 강좌’, 임대주택 주민을 위한 ‘노원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관악 인문대학’, ‘제주희망대학’ 등은 모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생겨난 실천인문학으로, 지역 활동가와 연대한 지역공동체 운동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문학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민인문학 강좌 지원 프로그램’도 이러한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실천인문학의 성과이기도 하다. 각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출발한 ‘성프란시스 대학의 노숙인 인문학’에서 촉발된 학진의 시민인문학 지원사업은 2008년 총 21개 강좌를 지원하면서 출발하였다. 관주도의 시민인문학 지원 프로그램은 여러 한계가 있으나, 인문학 대중화를 진작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2010년 인문주간 사업으로 진행된 충남 홍성동 흥동지역의 진행 사례는 제도화된 사업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인문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우리 마을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흥성인문주간사업의 행사 주체는 홍성군 흥동면에 있는 대안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와 지역연구소인 갯골연구소, 지역활동가들로 구성된 지역안내모임

8) 이병수, 「삶과 삶의 인문학 공부길」, 임철우·우기동·최준영 외, 『행복한 인문학』, 이매진, 2009, 160면.

인 사실이 학교였으며, 프로그램에는 여러 지역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사를 포함시켰다.⁹⁾

지역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인문학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자발성’과 ‘현장성’을 지닌다. 이 행사는 마을역사나 농민교양국어, 한문고전공부와 같은 인문학 공부와 마을지와 같은 지역의 역사와 세계협동조합운동 사례에 관한 출판기념회, 생태농업에 대한 지역의 기록 등 지역의 성과를 ‘기억’으로 기록하고 지역주민들과 나누는 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역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활동들을 서로 연대하는 ‘지역센터’ 제안과 ‘아카이브’ 아이디어 구상은 인문교육과 지역 현장성의 필연적 연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소 단위가 크고 복잡한 모델이 될 수 있으나, 마포지역의 ‘마을 인문학’은 로컬리티에 기반한 마을 인문학의 사례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마포의 ‘마을인문학’은 ‘마을주민-마을활동가-시민단체-연구자’의 바람직한 연대를 보여주는 현장 실천 인문학이다. 2010년 연세대 국학연구원 HK 사업단은 아젠다인 ‘사회인문학’을 실현할 현장으로서 ‘마을’에 주목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의 (사)사람과마을과 더불어 ‘마을인문학’ 기획을 추진하기로 협의한다. 여기에 ‘세교연구소’, ‘마을배움@네트워크 판’이 함께 하여 제도인문학의 틀을 넘어서 수요자형 배움과 삶의 틀에 대해 모색한다. ‘수요자형 배움의 틀’은 그 속에서 배우는 자들이 자신의 활동과 삶에 대해 발신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 학문의 틀을 확장하여 현장과 결합하는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호교류의 장이자 연구와 현장실천의 선순환구조의 협업모델’¹⁰⁾이다.

9) 이경란, 「인문학자의 사회적 실천: 연구와 제도, 대중교육의 선순환구조를 위한 모색」, 『사회와 철학』, 2011, 216-217면 참조. 이경란에 의하면 면 단위에서의 기획과 실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이 한국사회에서 주민자치력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말 지역주민들은 풀무학교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 생태농업을 도입한 이래 전 지역으로 생태농업지역으로 전화시키는 한편, 그 모든 과정을 자치적인 협동조합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과 광범위한 연대는 마포지역이 다양한 시민활동과 대안교육 공간, 자치공간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 또 이들이 ‘마을’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마을꿈터, 성미산학교, 미디어연대, 세교연구소, 지행네트워크, 마포두레생협 등이 마포 소속 단체들이다. ‘우리마을꿈터’는 2002년 마포두레생협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기 위해 교육공간으로 만든 것으로, 2001년 서부지역에서 출발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과 방과후어린이집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들은 아이들을 지역에서 계속 키우고 지역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키우자는 바람으로 만든 일종의 ‘마을학교’인 셈이다. 성미산 학교는 2004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출신의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대안학교’이고, 미디어 연대 또한 대안언론으로서, 과학교육 공간인 사이언스카페 등과 함께 마포의 주민자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대안적 거점이다.

이들 단체가 연대하여 ‘마을인문학’ 강좌를 열고, 교육 네트워크인 ‘마을배움@네트워크 판’을 구성하였다. ‘마을배움@네트워크 판’은 마포 지역에 다양한 교육강좌를 공동 논의, 홍보하는 네트워크로 실제적으로 공동의 홍보물을 발간했고, 지역사회의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마을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면서 ‘주민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 ‘마을’을 인문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작업과 풀뿌리자치운동모임을 결합하게 된다. 즉, 마을의 현재 지형을 다시 바라보고, 지역의 공동과제를 찾아 함께 해결해가는 작업을 병행해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마을인문학 강좌로 기획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 시도로써 40대 남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여 가정과 지역에서 소외되었던 남성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마을인문학과 지역 가꾸기의 지속적인 실천은 각 지역적 특색을 담은 ‘지역학’과 결합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군산의 ‘군산학’이라든가, 안동의 ‘안동학’, 덕성여대 산하 강북삼구의 ‘지역 연구소’ 등은 그 예가 될

10) 마포지역의 실천인문학 관련 자료는 『마을로 간 인문학』(김영선·이경란 엮음, 당대, 2014, 7-53면.) 참조.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학은 다음의 일본의 사례를 참고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는 지역의 이름을 딴 수많은 학문이 존재하는데, 가령 그 고장의 내력 발굴이나, 매력, 문제점을 제시하는 학술적 연구로서의 ‘지역학’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나마타학’¹¹⁾이다. 미나마타는 규슈의 구마모토 현의 바닷가 마을로, 수은중독의 일종인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곳이다. 미나마타학은 미나마타병이 일어난 원인을 다각적으로 파헤쳐, 미래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 가고자 하는 학문이다. 마찬가지로 ‘오키나와학’은 류큐왕국이라는 독립왕국에서 일본에 편입되고, 전후에는 미군기지를 떠맡아 온 오키나와 지역학이다. 미나마타학은 구마모토 대학에 있던 하라다 마사즈미(原田正純)라는 의사가 제창한 것으로, 그는 태반이 태아에게 독물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정설을 뒤집어 ‘태아성 미나마나병’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들 지역학은 미나마타병의 실상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문제를 글과 다큐멘터리 등 세상에 알리고 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학문으로 ‘지원학’이라는 것도 있다. 지원은 행정구역이라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지역과 달리 자신들의 홈그라운드, 거주지 혹은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용어로, 자신이 몰랐던 그 지역의 역사의 발견과 그 지역의 재생에 주체적으로 관련 맺으려는 의지를 담은 커뮤니티운동이다. 이렇듯 인문학 성과의 확산 토대로서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역의 역사 알기 운동에서 벗어나 지역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서의 지역학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를 적용해 본다면, 전북의 경우 군산이나 부안의 ‘새만금학’ 같은 환경문제 지역학을, 베트남 여성들이 많은 익산의 경우 다문화센터와 결합한 ‘다문화학’과 포함, ‘익산학’ 등의 지역학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이 천양지차이든, 지역에서의 인문학 확산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종다양한 경험과 연계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그 지역의 시민활동가나 시민단체, 지방자치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 일본의 지역학과 지원학에 대한 자료는 니시 마사유키의 「일본의 ‘지역학’ ‘지원학’의 구상과 실천」(『마을로 간 인문학』) 참조.

셋째, 인문학 대중교육과 시민 인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호소통’과 ‘주체화’이다. 인문대중화 프로그램의 많은 경우, 계몽주의적 학습세례 같이 일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홍동면이나 마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마을인문학’이나 ‘지역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라는 실수요자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하고, 학습 방식 또한 ‘쌍방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와 함께 재구성하는 인터뷰, 마을지 만들기 같은 작업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지원학을 제창(1995)한 미나타마 시의 시청직원 요시모토는 ‘거기에 존재하는 것 찾기’의 실천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자원 맵’이라는 그림지도 그리기를 추진했다. 현지조사에는 지역의 개성, 예를 들면 식물이나 식생, 물이 흐르는 방법 등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여 그곳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부각시켜 간다. 그 결과를 사진과 언어, 데이터 등으로 지도에 담아낸 ‘지역자원 맵’을 통해 관광 포인트를 추출해 내기도 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힌트로 이어질 가능성을 찾아가는 식이다.¹²⁾

이 방식은 학교에서 반복되는 일방향의 지식습득이 아닌, 주체적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인문학 교육의 목표가 성찰, 공감, 주체, 공적 세계로의 진입이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계적이고 무감각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일상에서 깨어나 자신과 주위를 확인하는 일이다. 인문학 강좌는 교수자 일방의 교수방식에서 벗어나 세미나, 토론, 혹은 소크라테스적인 산과술 등의 상호소통과 학습 주체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 인문학 강좌 참여 교수자들은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들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 인문학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교수진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노숙인, 교도소 인문학으로 2000

12) 앞의 글, 앞의 책, 244면.

년대 중반 화제가 되었던 이러한 실천인문학의 성과는 『희망의 인문학』(얼 쇼리스) 『거리의 인문학』(성프란시스 인문학 과정) 『행복한 인문학』(임철우 외) 등으로 책으로 출판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빈민과 약자들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의 창시자 얼 쇼리스는 1995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학교육수준의 인문학 과정인 ‘클레멘트 코스’¹³⁾를 개설했다. 이 클레멘트 코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 현재 4개 대륙, 6개 나라(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호주, 한국 등) 6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약자들을 ‘훈련’이 아닌 ‘교육’, ‘무력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세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은 한국에도 다대한 영향을 끼쳤다. 성프란시스 대학은 2005년 9월부터 <성공회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에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과정’을 개설하여 매 학기 30명 안팎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인문학 강좌를 통해 노숙인들은 주거형태, 생활자세, 정서, 대인관계, 자활의지 등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고,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소규모 창업 등 구직활동 등의 성취를 보였다. 이외에도 자활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광명시민대학 창업 경영학과 인문학 과정>, 임대주택 주민을 위한 <노원 성프란시스 대학 인문학 과정>, 법무부와 인권실천시민연대가 함께 마련한 <수용자 인문학> (2007) 등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인문대중화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업 주체가 누가 되었든 간에 (학진, 지자체, 실천단체) 다양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광명의 창업 경영학과와 경우, ‘광명시청’(교육시간을 자활 근로시간으로 인정),

13) 클레멘트 코스(Clement Course)는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인문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가 분류한 (도덕)철학, 문학, 예술사, 역사, 논리학 등 다섯 가지 학문 분야로 이루어진 인문학 과정이다. -고병현, 「실천인문학의 다양한 가능성과 효과성 고찰」, 『수행인문학』, 2007, 65면.

14) 실천인문학의 사례와 전개과정은 앞의 고병현의 글 참조.

‘광명자활후견기관’(수강생 선발), ‘사회연대은행’(창업시 무담보 대출 제공) 등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대학이 교육 위탁기관이 된 경우, 이러한 사례를 참고삼아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지역 사람들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인문학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인문학’은 대학 캠퍼스나 평생교육기관 등을 벗어나 주민센터, 도서관, 서점, 청소년 센터, 다문화센터, 아이돌봄센터, 공동육아놀이터, 협동조합, 경로당 등의 새로운 교육현장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주민들과의 만남은 인문학 교육이 복지 프로그램과 동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인문학 교육은 청소년이 겪고 있는 일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상담일과 분리될 수 없으며, 공동육아, 다문화센터, 경로당 등의 인문학 교육 또한 여성인권과 교육 정책, 아동 복지, 이주노동자 복지, 노인 복지 등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또한 ‘찾아가는 인문학’은 인문학 수요자를 대상화하는 ‘공급자 위주’의 관점을 버리고 실천인문학의 본래 목표인 ‘성찰적 사고를 통한 해방의 힘’, ‘시민 주체 되기’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보여주는 ‘돌봄’의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 교육을 통한 ‘주체되기’의 성과는 줌마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줌마네는 2001년 두 명의 여성학자가 ‘아줌마’들이 함께 토론하고 글 쓰는 훈련을 하는 장으로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이자 오프라인 단체이다. ‘경력단절, 사회적 성역할’ 등의 여성 삶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단체는 많은 주부들이 참여하여 꾸준히 책을 내고 있다. 줌마네가 낸 책 들로는 『맛있는 요리』, 『늘푸른 환경일기』, 『밥피안피』, 『서울택의 장보기 사전』 등과 동네잡지 『동네한바퀴 더』(성산동 편), 『뚜벅뚜벅 연남동』(연남동 편), 『일곱사장이야기』 등이 있다. 줌마네의 사례는 글쓰기 공부에서 출발, 일자리까지 연결하여 교육대상자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위치를 확보해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¹⁵⁾

15) 이경란, 「인문학자의 사회적 실천」, 『사회와 철학』, 223-224면.

4. 결론

이상으로 인문학의 확산 방안의 구체적 사례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문학의 성과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한 전제이자 수행되어야 할 필수과제는 첫째, 순수 인문학 전공영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지지이다. 인문학에 대해 통찰하고 그 성과를 응용하고, 실천하는 주체 혹은 모체가 없이 인문학 확산은 불가능하다. 둘째, 제도교육에 있어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교육을 회복해야 한다. 입시 위주의 파행적인 중고교 교육을 회복하곤 대학에서의 인문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의 각 전공교과에 접합한 응용인문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

인문학 대중화 이전에 ‘인문학의 성과, 혹은 인문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전문연구성과나 만고불변의 보편적인 고정적 가치나 윤리가 될 수 없다. 보편적 태도이지만, 그것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결과하는 ‘성찰하는 힘’이고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다. 따라서 인문학 교육의 목표가 ‘주체와 시민’으로 요약될 때, 그것은 곧 획일적 인간이 아니라 곧 구체적 현실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존재 세우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최첨단과학과 글로벌의 현실에서 ‘인문’이 절실한 것은 이 압도적 현실 앞에서 선 무력한 우리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인문학 성과의 확산과 대중화 실천 방안은 첫째, ‘지역’에 주목해야 하고 지역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추상적인 관념으로서 ‘세계’와 ‘숫자’, 익명의 타자들과의 불안한 관계는 진정한 삶의 형식이 될 수 없다. 하여 인문학은 ‘로컬리티’라는 구체적인 리얼리티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마을 만들기’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이미 여러 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천운동이다. ‘성프란시스 대학 인문학 과정’ ‘광명시민대학’, ‘홍성인문주간사업’ 마포의 ‘마을 인문학’ 등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둘째, 마을인문학과 지역 가꾸기의 지속적인 실천은 각 지역적 특색을 담은 ‘지역학’과 결합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군산학, 안동학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고, 더 발전된 형태로 일본의 미타마타학, 오키나와학 그리고 지원학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셋째, 인문학 대중교육과 시민 인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호소통’과 ‘주체화’이다. 프로그램과 강좌는 계몽주의적 일방향성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노숙인, 교도소 인문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이주노동자, 방치된 청소년, 독거 노인 등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인문학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복지프로그램과 연동해야 한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자료와 성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모색한 일종의 시론이다. 개별 지역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연구자의 역량의 한계이나, 앞서 제시한 사례들을 참고 삼아 새로운 인문학 실천운동이 일어나길 감히 바라본다. 인문학은 제도교육에서 규정 하듯 고대 역사, 고전문학, 유교철학 등의 고전을 다루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고전을 통해 현대를 사유하고 현재를 주도하게 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인문학 확산과 대중화는 그렇게 실제적인 삶터에서 가족, 부부의 사적 영역, 그리고 동료, 회사, 사회 등의 공적 영역에서 치열한 ‘주체’와 ‘시민’을 만들어낼 때, 의미있는 실천적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병헌, 「실천인문학의 다양한 가능성과 효과성 고찰」, 『수행인문학』, 2007, 65면.
- 고영직, 「운동으로서의 실천인문학을 위하여」, 『문화과학』, 2010년 가을, 167-170면.
- 김영선·이경란 엮음, 『마을로 간 인문학』, 당대, 2014, 7-53면.
- 김인숙·남유선,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호이테북스, 2016, 24-25면.
- 박정하·김동환·오종록·허병두, 『중·고등학교에서의 인문교육 현황진단 및 정책대안』, 인문사회연구회, 2003.
- 얼 쇼리스, 『희망의 인문학』, 고병헌·이병근·임정아 옮김, 이매진, 2006, 24-197면.
- 이경란, 「인문학자의 사회적 실천: 연구와 제도, 대중교육의 선순환구조를 위한 모색」, 『사회와 철학』, 2011, 216-217면.
- 이병수, 「앎과 삶의 인문학 공부길」, 임철우·우기동·최준영 외, 『행복한 인문학』, 이매진, 2009, 160면.
- 전우택 외, 『의과대학에서의 인문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인문사회연구회, 2002.

【Abstracts】

**A Study on the way of diffusion
and popularization of humanities**

Jeong Eun-kyoung

This paper discussed the direction and cases of diffusion and popularization of humanities. Pre-requisites for the spread and popularization of the humanities is a policy in support of the humanities' major areas. It is impossible to spread without a subject who has insight, application and practice. Second, whole-person education should be recovered in the education system. The exam-oriented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should be recovered and liberal arts education at the university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joint application of Humanities courses in each major subject at the university.

Prior to popularizing humanities, agreement must be made regarding "What is humanities or its outcome?" It is the 'power of reflection, communication and empathy', which will have various results depending on the time and place. The goal of a liberal arts education is to be subjects and citizens and it will establish not same human but various human in a concrete reality.

First, humanities is to pay attention to local and to seek the solidarity of the region for the popularization of the humanities subjects. Secondly, the practice of humanities should be continued and developed with

'locality studies', each containing a regional specialty. There are some examples, such as Minamata science, Okinawa science in Japan.

Third, it is important for public humanities education to interact. Programs and courses must consist of interactive content out of one-way and enlightenment. Fourth, humanities should be active in visiting local residents and socially disadvantaged communities. We should seek a practical way to care for the abandoned youth,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connect them with welfare programs.

Key words: diffusion and popularization of humanities, performance humanities, citizen humanities, locality, region, welfare program, interactive, reflection, communication and empathy

이 논문은 2016년 9월 12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